

# '쿨 서비스'로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 전주 발전, 청소년들이 이끈다

### 시, 23일까지 고교생 대상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 덕진구, 9월까지 폭염피해 안전대책 추진 기동순찰단 운영·취약계층 보호 안전 첫마중길·덕진광장 주변 등에 얼음 배치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위잡기에 나섰다.

7일 전주시 덕진구에 따르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현장 기동순찰단'을 조직하고 순

찰을 실시한다.

현장 기동순찰단은 2개반 6명으로 구성되며, 덕진구 관내 15개동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첫 마중길, 고숙시의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원, 공사 등 노숙 의심지역에 대한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시로 순찰을 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주민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관찰 지구대, 각 동주민센터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발견

시에는 의료기관이나 쉼터 등 구호기관을 연결하고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해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덕진구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당, 동 주민센터 등 214곳을 무더위 쉼터로 정하고, 경로당 운영비도 전년 대비 50% 증액해 추가 지원하는 등 폭염기간 더위잡기에 나선다.

또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시원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심열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폭염주의보(33°C 이상)와 폭염경보(35°C) 발령시 시민들의 무더위를 씻어줄 '도심 쿨(Cool)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덕진구는 주요 11개 노선에 대해 낮 최고기온이 시작되는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살수작업

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첫마중길, 고숙·시외버스 터미널, 덕진광장 주변, 전북대 구정문 등 12개소에는 얼음을 배치해 도심 쿨(Cool) 서비스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 횡단 보도에 '여름철 아트차일(그늘막)'을 확대·설치해 신호등 대기시간 보행자들의 불쾌지수잡기에 나선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일수가 많아지고 폭염의 온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폭염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며 "덕진구에서는 지속적인 쿨(Cool)서비스를 추진해 시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등학생들의 우수한 정책 제안 아이디어를 접수 받는다.

전주시는 청소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한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시는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접수된 제안들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경제성, 실용성 등을 평가하고, 실무부서의 검토와 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시상표창과 함께 최고 2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응모는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공모제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방문(전주시청 기획예산과 3층) 접수도 가능하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대학생 대상 제안공모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안공모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소통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106)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대박난 영화 '노무현입니다', 전주시 열린 민주당 최고위서 '박수갈채'

## 문화계 블랙리스트 속 제작 지원 강행 '결실'



#### 추미애 대표 "당에 큰 힘 될 듯" 김승수 시장 "영화계 조직위 결단과 시민의 마음 덕분"

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영화제에 대한 운영 원칙과 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블랙리스트 속에서도 용기 있고 담대하게 '노무현입니다'의 투자 결정을 했고, 흔히들 하는 대박 낚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그것은 국제영화제 조직위의 결단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었다"고 화답했다.

한편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지난 3월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최단기간인 10일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고, 지난 6일 기준 총 137만 2354명(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의 관객을 불러 모으는 등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가 흥행을 이어가면서, 전주는 영화표현의 자유를 지킨 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영화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홍보효과와 영화 흥행에 따른 투자수익까지 거둘 수 있게 됐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가 남몰래 지원해 최단기간 100만명 관객을 돌파한 다큐영화 '노무현입니다'가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훈훈한 화제가 됐다.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지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국 속에서도 꿋꿋이 '노무현입니다'의 산파역할을 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용기와 결단을 극찬했다.

특히, 추 대표는 김 시장을 호명 한 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노무현입니다'를 제작(지원)을 하시는 데 대박이 났다. 더불어민주당에 많

은 힘이 될 것 같다"며 "김승수 전주시장께 함께 박수쳐드리자"며 축하인사를 보냈다.

영화 '노무현입니다'와 전주국제영화제가 당 최고위원회 공식석상에서 가장 먼저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은 영화의 순수제작비 총 3억 원 중 1억원을 전주국제영화제로부터 지원받아 제작됐고 국내 다큐영화로는 최단 시간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특히, 영화가 제작되고 성공하기까지는 영화계 조직위원장으로서 평소 '영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어떠한 위압이 있더라도 전주국제영화제를 끝까지 지키겠다'

### 도내 드론 동호회원들과 간담회

세계 최초로 탄소소재와 첨단 ICT(정보통신기술)산업, 드론산업을 융복합해 개발한 전주시가 드론 레저 스포츠산업 기반조성에 나섰다.

시는 7일 전주시장실에서 전북지역 드론동호회 회원들과 드론을 레저 스포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열린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드론축구 저변확대 등 전주를 드론축구 중추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시는 드론레저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이날 간담회에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호회원들과 관련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오는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드론축구 보급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1회 전주시장배 전국 드론축구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실업 등 청년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시는 7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수립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해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시·군·구 공무원과 시의원, 대학 교수, 청년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용역수행기관인 전북대 김재우 교수로부터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계획을 청취하고, 전주시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 사회/문화, 복지, 정치, 고용/노동, 교육, 건강/주관적 웰빙, 태도/가치관, 청년이슈/정책, 성장 배경, 지역 등 전주시 청년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주 청년에게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청년에게 체감되는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청년의 유출을 막고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이 희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완산구,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점검

전주시 완산구는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설치 규정에 대해 5일부터 2주간 홍보를 실시하고 19일부터 한 달간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본격적으로 에어컨이 가동되는 폭염기에 대비, 보행자들의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변 상가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홍보와 미비시설 보완 지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우리동네 특화사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자 8명 선정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7일 '우리동네 특화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한 8명을 선정했다.

주민자치기능을 강화시키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공모에는 총 42건의 시민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친 마을재생과 주민복지, 환경정비 등 총 6개 분야, 21건의 아이디어가 최종 심사에 오르게 됐다.

정명례 협의회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이날 최종 심사에 오른 21건의 아이디어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실시하고 대상 2명과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등 총 8명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일 총결론에서 열리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에서 진행될 시민 투표점수 점수(20%)를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바이전주 상품권을 지급될 예정이며, 이달 중 전주시장 표창도 수여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